

봄이 왔니?

케빈 헝크스 글·그림, 김여진 옮김

오늘책 | 30쪽 | 15,000원 | 대상 : 3~7세

#봄 #봄 그림책 #계절 #계절의 변화 #인내 #희망 #기다림 #따뜻한 그림



봄은 언제 오는 걸까요?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응, 봄이야.” 자연은 그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은 말합니다. “아직 아니야.” 두툼한 구름도, 굴속의 동물들도, 창밖에 내리는 봄눈도 고개를 젓습니다. 따뜻해졌다가 다시 추워지고, 꽃이 피었다가 눈이 내리는 번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계절은 분명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봄이 온 걸까요?

줄어연(줄아서 하는 어린이책 연구회)은 초등 교사들로 이루어진 어린이책 연구회입니다. 이 활동지는 줄어연에서 활동하는 김여진 선생님이 집필하였습니다.

줄어연 × 오늘책
줄어서하는어린이책연구회

활동 1 표지 꼼꼼히 살피기



책을 읽기 전 표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계절의 느낌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 어떤 그림이 겨울 느낌인가요? 찾아서 △로 표시해 보세요.
- 어떤 그림이 봄 느낌인가요? 찾아서 ♥로 표시해 보세요.

활동 2 OX 퀴즈를 풀어요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문장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1 추운 날씨에 고양이는 계속 잠을 자요.

2 봄에는 차가운 바람이 전혀 불지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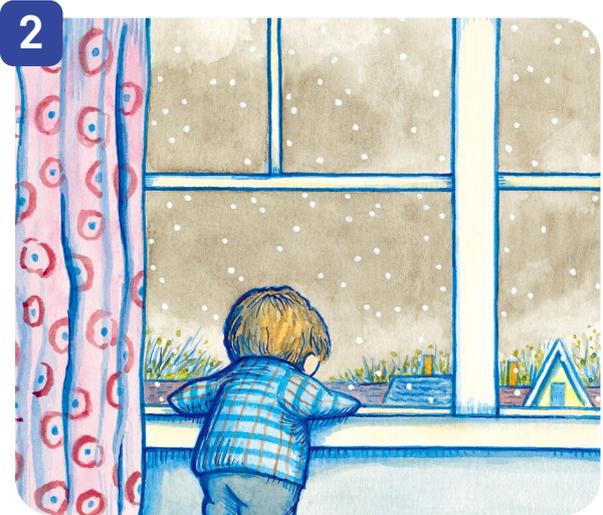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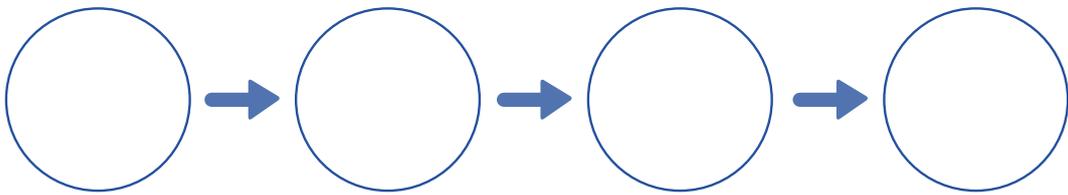
3 새들은 눈이 녹아 생긴 물을 마셨어요.

4 눈은 겨울에만 내려요.

5 다람쥐는 굴속에서 겨울잠을 잤어요.

활동 3 계절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봄이 왔니?』를 읽으면 봄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림책 내용을 떠올리며 일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그림의 번호를 써 보세요.



활동 4 어디 어디 숨었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을 맞이하여, 동물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래의 질문에 맞게 모두 동그라미 치고, 몇 마리인지 세어 보세요.

1 나무 구멍에 있는 다람쥐

마리



2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는 새

마리



활동 5

봄의 소리, 시의 소리

『봄이 왔니?』를 소리 내어 읽으면, 동시를 읽는 느낌이 들어요. “응, 봄이야.”와 “아직 아니야.”가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봄이 온다고 말하거나,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누구일까요? 봄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응, 봄이야.”

공원의 나뭇가지에 봉긋한 새순들이 말했어.

“응, 봄이야.”

파아란 하늘을 누비는 새들이 말했어.

“응, 봄이야.”

이(가) 말했어.

“아직 아니야.”

얼음장처럼 차갑고 뾰족한 바람이 말했어.

“아직 아니야.”

두툼하고 칙칙한 구름들이 말했어.

“아직 아니야.”

이(가) 말했어.

활동 6

봄에는 어떤 꽃이 필까?

봄에는 길거리와 숲, 정원과 마당에서 꽃이 탐스럽게 피어난답니다. 봄에 활짝 피는 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꽃을 직접 관찰하고 예쁘게 그려 보세요.



꽃의 이름:

꽃의 이름:

활동 7 봄에는 어떤 꽃이 필까?

여름에는 물놀이, 물총 놀이를 하고, 가을에는 단풍잎과 열매로 소꿉놀이를 해요.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는 눈싸움, 눈사람 만들기, 눈썰매 타기를 하고요. 봄에는 친구들과 어디서 어떤 놀이를 하며 놀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그려 보세요.



A large, blank white area with a spiral binding on the left side, intended for drawing or writing.